

Q&A 6월 4주차 — 금값은 왜 떨어지나 (전쟁·금리 상승에도 하락한 이유)

2026-06-22 · 박종훈의 지식한방 · qna_part5_02

전쟁이 났는데 금이 내렸다. 금리가 올랐는데 금이 또 내렸다. 80년 공식이 한꺼번에 깨진 자리에서, 이것이 조정인지 천장인지를 가른다.

01 핵심 골격

- 1 통상 공식 두 줄(전쟁 → 금 상승 / 금리 하락 → 금 상승)이 동시에 깨졌다 — 표면은 역설이지만 원인은 그 아래 구조에 있다
- 2 이란 전쟁 직후 사흘은 공식대로 갔다. 사흘 뒤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기 시작했고, 80년간 최고의 안전 자산이던 자리가 흔들렸다
- 3 이번은 '유가 전쟁'이었다 — 석유 살 만큼만 달러를 샀고 국채로는 흘러가지 않아 달러 강세와 금리 상승이 동시에 왔다
- 4 고점 대비 하락은 종가 기준 -23%, 당일 고점 기준 -26%. 6월 19일 종가 \$4,150. 원화 절하 탓에 원화 기준 체감은 약 -17%
- 5 6월 11일 금 저점일은 스페이스X 청약 마감일이었다 — 미국은 청약 증거금으로 주식은 인정하지만 금은 인정하지 않는다
- 6 6월 FOMC는 12대 0 동결(3.50~3.75%, 4회 연속)이었지만 18명 중 9명이 인상에 점을 찍었고 중간값이 3.4%에서 3.8%로 올라갔다
- 7 금이 다시 금리에 민감해진 이유는 연동이 되살아나서가 아니라 값이 올라 레버리지가 유입됐기 때문 — 비싸질수록 금리에 민감해진다

- 8 코스피가 3~4% 오른 날 상승 100종목·하락 700종목이 반복된다. AI가 지수를 혼자 떠받치는 중이고, 그래서 연준은 완화 명분을 잃었다
- 9 지표는 뜨겁지만 실물은 반대다 — 하위 90%는 소득도 자산도 줄었고 소비 증가는 상위 10~20%에 몰려 있다
- 10 금은 AI가 꺾인 뒤에 오른다. 단 초기에는 신용경색으로 같이 떨어진다(2008년 6개월 / 2020년 서너 주)
- 11 1970~1980년 11년간 24배 상승의 경로는 평탄하지 않았다 — 1973년 약 -30%, 1976년 -42%·20개월 조정 후 650% 상승
- 12 1980년은 성격이 달랐다 — 고점 대비 -70%, 이후 20년 침체. 지금은 -23~26%, 다섯 달째로 아직 1976년보다 얇고 짧다
- 13 명목금리가 아니라 실질금리다 — 볼커 이전에도 금리는 8~9%였지만 물가가 더 빨라 금값은 650% 올랐다
- 14 천장의 조건 4축 비교에서 1980년은 4/4, 2026년은 0/4 — 부채 31%↔124%, 금광 139건↔0건, 중앙은행 매도↔3년째 매수, 단극↔다극
- 15 조정의 방아쇠(달러 강세·실질금리 상승·위기 완화)는 다 켜져 있지만, 천장의 조건(19.5%까지 올릴 수 있는 여력)은 부채 124%에서 성립하지 않는다

02 최신 지표 보강 (2026-09-08 (회차 기준일 2026-06-22 이후 확인))

스페이스X IPO 실제 규모 — 강의 수치 확인

\$750억 / 5.556억 주 × \$135

사상 최대 IPO가 맞다. 2019년 사우디 아람코(\$294억)의 두 배 이상. 상장 첫날 19% 올라 \$160.95로 마감, 시가총액 2조 달러 돌파(나스닥 SPCX). 상장 직전 xAI와 합병한 상태로 상장했다.

출처 · bloomberg.com

"3년째 매수"의 실측 — 값이 떨어지는 동안에도 샀다

2026 Q1 244톤 / Q2 289톤(+62% YoY)

세계금협회 기준 Q2는 데이터 시리즈상 가장 강한 2분기였는데, 바로 그 분기가 금값이 내내 떨어지던 구간이다. 연간 전망은 약 850톤. 과테말라·인도네시아·말레이시아·캄보디아·우간다·케냐가 매수 명단에 새로 올랐다.

출처 · gold.org

강의가 지목한 6월 24일 마이크론 실적 — AI는 꺾이지 않았다

매출 \$414.6억 (직전 분기 \$238.6억)

전년 동기는 \$93.0억이었다. 클라우드 메모리가 300% 이상 늘어 \$137.7억. 4분기 가이드스 약 \$500억으로 시장 예상(\$432억)을 크게 웃돌았고 발표 후 시간외 15% 상승. 1년간 주가 약 700% 올라 시총 1조 달러를 넘었다.

출처 · cncb.com

워시 첫 FOMC의 덜 알려진 대목 — 연준의 말하는 방식이 바뀌었다

의장 본인은 점도표에 점을 찍지 않았다

점도표·경제전망요약 체계 자체에 회의적이라는 기존 입장 그대로다. 6월 성명서는 최근 8년 중 가장 짧고 단순했으며 포워드 가이드스를 상당 부분 삭제했다. 연내 인하 문구는 제거되고 인상 가능성이 명시됐다.

출처 · lordabbett.com

강의가 경계한 6월 25일 PCE — 이 악재는 실현되지 않았다

근원 PCE 전년비 3.4% → 3.3%

강의는 4.1%까지 나올 수 있다고 경계했으나 6월 PCE 물가지수는 전월비 -0.1%, 근원 PCE는 전월비 +0.1%였다. 회차 시점에 지목된 단기 악재 둘 중 물가 쪽은 우려대로 가지 않았다.

출처 · bea.gov

그 후 석 달 — 조정은 여덟 달째로 길어졌다

2026-09-07 금 \$4,404.98

회차 시점(6/19 종가 \$4,150)보다 회복했지만 1월 사상 최고 \$5,595에는 여전히 20%대 아래다. \$4,000~\$4,100에서 바닥을 다진 뒤 반등했다. 중국은 8월까지 22개월 연속 매입. 주요 은행 연말 목표는 JP 모건 \$4,500~골드만삭스 \$4,900으로, 신고점이 아니라 회복이 컨센서스다. 1976년의 20개월과 비교하면 아직 절반에 못 미친다.

출처 · tradingeconomics.com

03 한국 투자자 — 예의주시 신호 3가지

01 단기 베팅이 아니라 장기 닻 — 강사는 금을 배의 위치를 고정하는 닻으로 쓰라고 말한다. 순풍은 돛(AI·실물)이 받는다.

02 일시 매수가 아니라 분할 매수 — 바닥 시점은 누구도 맞히지 못한다는 것이 전제다. 강사는 워런 버핏과 레이 달리오조차 "타이밍은 모른다"고 말한다는 점을 든다.

03 가운데가 가장 위험하다 — 어정쩡한 중간, 특히 현금은 장기적으로 흔들린다. 현금이라면 원화보다 달러가 낫다는 것이 강사의 표현이다.